

## 첫 해외특별교구 출범 임박

한국불교 세계화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해외특별교구가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 동부지역에서 처음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는 “지난 3월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된데 이어 미국 뉴욕불교사암연합회가 처음으로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련 서류 미비로 1차 설립 신청이 보류됐지만 서류를 구비해 재신청하기로 한 만큼 이르면 9월 초순께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욕사암연합회가 설립을 추진 중인

‘미국동부 해외특별교구’는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 동부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하며, 관할지역에는 현재 뉴욕 불광선원, 원각사, 청아사, 뉴저지 원적사, 혜안정사 등 30여 개 사찰, 50여 명의 스님이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동부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동부 해외특별교구 설립 추진위원장 휘광스님(뉴욕불교사암연합회장, 불광선원 주지)은 불교신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대부분의 해외사찰이 종단의 지원 없이 스님 개인의 원력으로 창건, 운영하다보니 둘 사이가 소원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통

해 종단은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고, 해외사찰은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이라는 자긍심과 더불어 해외에서의 행사 등록 기능, 각종 행정 및 포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승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미국동부 해외특별교구 설립 신청서가 접수되면 총무원 총무부는 설립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뒤 총무회의에 상정해 총무원장 스님이 설립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미국동부 해외특별교구 설립 추진위는 설립 승인이 나면 곧바로 교구장 선출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뒤 오는 9월 초순께 미국동부 해외특별교구가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동부 해외특별교구는 첫번째 ‘해외특별교구’이자 지난

2005년 7월 출범한 ‘군종특별교구’에 이어 두 번째 ‘특별교구’다.

조계종 종헌 제93조2항에는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의의 종의를 얻어 종단의 특별한 목적사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교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종회는 지난 3월 ‘해외특별교구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외특별교구 설립 근거를 뒷받침해줬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핵심 및 주요과제로 선정하는데 이어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 해외특별교구 설립 추진에 대한 현지 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해외특별교구 설립에 박차를 가해 나타난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물이 바로 미국동부 해외특별교구 출범이다.

불교신문 박인탁기자

## 이란 종교학자 총무원 예방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해경스님은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란 종교학 교수 하킴-엘라이 박사와 조로한 박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해경스님은 “한국불교는 이웃종교의 신앙과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말하며 “불교는 지난해 한국 이슬람교 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간 대화와 교류의 시간을 통해 이웃종교의 다양한 사상과 문화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평소 한국불교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란 종교학 하킴-엘라이 교수는 해경스님에



게 “영성, 도덕적인 삶, 윤리와 신비주의(명상)등을 중요하게 가르친다.”는 성직자 양성학교인 알무스타파 학교를 소개했다. 이에 스님은 “향후 종단과 이슬람 종단이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프랑스서 한국불교 우수성 알린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해 미국을 순방한데 이어 오는 9월 프랑스를 순방해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조계종 총무원은 “한국불교 세계화와 세계평화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단장으로 한 한국불교대표단이 오는 9월27일부터 10월3일까지 프랑스 파리와 떼제 등지를 순방한다”고 8월 2일 발표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국제포교네트워크 강화’와 ‘사찰음식 대중화’, ‘해외특별교구 설립’ 등 제33대 조계종 집행부의 핵심 및 주요과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불교신자 수가 100만 명에 이를 만큼 유럽 내 대표적인 불교 번성 국가인 프랑스로 2번째 해외순방길에 나서게 됐다.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 이리나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의 환담을 통해 한

## 나무갤러리에서 열린 ‘간다라의 영혼’ 전

대승불교의 발상지 간다라 유적 사진전이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7월 22일 개막됐다. ‘간다라의 영혼’ 사진전은 불교예술이 가장 빛났던 파키스탄의 간다라 지역에서 처음으로 불상이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불상을 통해 간다라 불교가 한국 불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곳이란 점이 드러나고 있다.

간다라 문화예술협회와 주한파키스탄대사관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스와트 지역에 있는 ‘자하나바드 불상 암각화’를 비롯해 ‘대열반상’ ‘미륵보살상’ ‘부처님의 탄생’ ‘마야 왕비의 태몽’ ‘고행상’ 등 부



처님의 일대기가 고스란히 담긴 암각화 불교예술품들과 스와트 지역의 유적지에서 나온 토카다 탑과 니모그람 탑 탁실라의 자이나교 탑 등 실크로드 지역의 유물 등 51점이 전시됐다. 간다라 지역은 동서양 문명은 물론 다양한 종교가 만나 간다라 불교미술을 꽃피운 지역이다.

한편 지난 22일 개막식에서 주한 파키스탄대사 쇼카트 알리 무카담 씨는 “전시회를 통해 한국과 파키스탄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이해하고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문화부장 진명스님은 “간다라미술의 깊은 이해를 통해 파키스탄과 한국간의 협력은 물론, 종교간의 화합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무카담 주한파키스탄대사와 외교통상부 김봉현 차관보 등 양국 외교 관계자들과 조계종 종회의원 정범스님, 한승조 종교사회단체협의회장(고려대 명예교수) 등 교계와 학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신문 김종찬기자

국불교의 국제구호와 분쟁해소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상호 협력과 연대활동 의지를 천명하게 된다.

9월 30일에는 파리7대학을 방문해 한국학 전공학생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학업에 더욱 더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파리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며, 파리 길상사에서 교민불자 법회 및 점심공양을 통해 먼 이국땅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프랑스 교포불자들을 격려한다는 계획이다.

편집부

# 한국 불교와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선센터'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는 목동지역의 도심포교의 중심도량과 한국 불교와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적인 센터이다. 건축 양식은 신라 때 건립된 경주 황룡사 9층 목탑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으며, 국제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신라 불교처럼 전 세계인의 정신과 수행문화를 주도하고자 2010년 11월 15일 개원식을 하였다.

총 면적 2,110㎡(638평)에 연면적 10,600㎡(3,206평)의 지상 7층, 지하 3층 규모로 선원, 템플스테이관, 큰 법당, 교육문화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간화선 수행, 템플스테이, 선문화 강좌, 사찰 요리 전수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동시통역 시스템과, 외국인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의 문화 및 불교 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국제선센터는 간화선, 템플스테이 체험 공간을 넘어 한국 전통문화 소통의 공간, 상생의 공간으로 발전하여 한국 정신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국제적인 명소로 발전해 나아가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금차선원은 내·외국인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참선 입문반을 개설하여 참선 수행을 위한 기본 교육을 받은 후 선원에 입방 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약 4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금차선원이 세계 유수의 수행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1) 간화선 학술 세미나 2) 타종교 수행 방식 교류 3) 세계 수행센터 교류 4) 수행 포럼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전통 수행 방식을 알리고, 간화선의 대중화 세계화를 선감 원돈스님을 모시고 사부대중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국제부 업무로는 내국인을 위한 템플스테이와 템플라이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전용 안내센터는 인근 지역 및 한국 문화와 불교에 관심 있는 외국인에게 각종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문화 체험 도량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다. 특히 선센터는 자연 속의 전통 사찰과는 차별되는 단점을 보완하여 프로그램 내용에 사찰음식 만들기 시현과 참선, 108배 등의 체험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7월부터는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위탁한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음악명상치료>, <마음알기, 그리고 다스리기> 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강의와 참선, 108배를 통한 순화 프로그램을 매 달 운영한다.

아울러 서울 시내 도심 포교 중심 도량으로서 자리매김을 위해 주지 현조스님을 주



축으로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과 함께 매주 일요 법회, 불교 대학과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요 법회는 법사스님의 주역같은 법문으로 매주 약 300여 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법회를 통해 매주 약 150여 명을 향한 활발한 수행과 포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전통문화를 선양하는 사명의 일환으로 1층에 마련된 사찰음식점 <발우공양-공감>, 스님들의 전통 음식인 사찰음식의 비법(recipe)을 전수하는 향적세계와 <차명상>등의 다양한 문화 강좌를 개설하여 현대인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획기적인 포교 방법을 도입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특히 영어로 진행되는 Dharma school 은 외국인들을 위한 명상교실로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예불, 참선, 법문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진다. 물론 수행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재미교포와 영어에 관심 있는 내국인들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열린 교실이다.

앞으로 국제선센터는 한국 불교 세계화의 새 전기를 마련할 중요 거점 포교 도량으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또한 세계 곳곳의 여러 불교와 수행센터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서 세계 속의 한국불교·문화가 선양되는 'Center'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클\_ 국제선센터 국제처장 보관스님**

02-2650-2200 www.seoncenter.or.kr

##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제언]

### 외국인 스님의 교육을 통한 국제화의 실질적 향상 방안



한국불교의 발전과 함께했던 지난 24년간의 수행생활과 한국의 대중생활을 함께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조계종의 외국인 스님 교육을 향상시킬 작은 생각을 감히 제언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산스님, 일각스님, 원명스님, 송산스님의 입적 후에 조계종의 국제화에 있어 실질적 향상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조계종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 일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1. 다른 나라에서 '불교' 특히 '한국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사고 방식과 습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불법은 무엇이며, 아시아 문화 전통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구사회에서는 동양의 전통을 서구의 환경에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불문을 현지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 하루 일과를 현지 관습에 맞게 적용시키는 것, 승가 내 혹은 승가와 재가와와 인간관계에 있어 조금 더 '민주적'일 것과 개인의 특성을 인정하는 것 등입니다.

2. 불자들은 수행자들이 진정으로 도덕(계율)을 지키고, 심오한 마음수행을 하며 사치품 없는 검박한 생활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승가란 기본 계율과 보살계를 굳건히 지키고, 자비로 중생을 제도하는 비구 비구니가 함께하는 커다란 가족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이 드신 스님들을 부모처럼 모시고, 또래 스님들을 형제자매처럼 여기며, 어린 스님들을 자식처럼 여겨야 합니다. 또한, 보살계에 따라 스스로가 채식주의자가 되고 신도들을 채식주의자로 이끄는 것은 윤리와 환경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3. 서구사회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외국인 스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덧붙이자면 외국인 포교승을 위한 세미나를 조직하고, 해외 사찰에 필요한 물품을 보시하는 것 등입니다.

4. 불교와 현대 과학 사이의 대화는 합리적인 시각에서 불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불법이란, 시대와 환경을 고려하면서 영적 사회적 관점(자비, 인권, 평화, 동물권 등)과 논리적 관점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접근을 통해 포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송광사 일각 회광스님의 제자, 이태리 무상암 주지 대혜 합장



국제선센터 주지 현조스님

“장마비가 지리하게 내리는 요즘, 목련존자의 효심을 생각하게 하는 백중이 다가왔습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가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지난날들이 이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마다 꽃이 되어 피어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작년 11월에 개원한 국제선센터가 전 세계인의 정신과 수행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도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 전통불교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 지구촌공생회, 미얀마 한국어수업 진행

‘가...나...다...라...’ 미얀마의 한 초등 학교. 우리에게 익숙한 말소리가 들린다. 자그마한 교실에는 초등학생부터 마을주민까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다. 국제개발구호NGO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송월주 큰스님)가 화석죽회의 후원을 받아 건립한 썬마디따 화석죽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한창이다. 지구촌공생회는 지난 5월부터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세 번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구촌공생회가 한국어교실을 시작한 것은 한국어에 대한 미얀마 사람들의 높은 관심 때문이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한류문화의 영향으로 한국어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하거나, 한국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년에 한번 실시되는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 주관 한국어능력시험과, 미얀마 정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EPS(Employment Permit System)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매년 5,000



명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응시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지만, 사정은 쉽지 않다. 미얀마 현지 사설학원에서 일주일에 2번 한국어 수업을 받을 경우에는 약 2만짜(한화로 약 2만원)으로서 미얀마 공무원의 한 달 월급이 5만짜임을 감안하면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

기 때문이다. 이런 현지의 상황을 감안하여 지구촌공생회는 썬마디따 화석죽 초등학교내에서 한국어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업에 충실한 학생 60여 명을 주지스님의 추천하에 선발하였으며, 양곤대학 한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지구촌공생회에 근무하였던 난쫓가임씨를 교사로 채용하였다. ‘가...가...거...거...’ 서툰 외국어이지만 씩씩하게 읽어나가는 미얀마인들의 눈에는 설레임과 의욕이 가득하다. 지구촌공생회 홍보팀 오성탄 간사 www.goodhands.or.kr

\*썬마디따 화석죽 초등학교는? 미얀마 양곤시 북부지역에 위치한 밍글라돈 타운십 썬마디따 사원 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2009년 지구촌공생회가 운문사 승가대학에서 공부한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화석죽회(花石竹會)가 후원한 8000만원의 기금으로 교실 4칸과 사무실 1칸을 준공하였다.



## 미래 한국불교 세계화의 주역 '미주동포 청소년 한국불교 문화연수단' 고국 방문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미주동포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교문화연수 행사가 진행되었다. 주최는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사회부와 뉴욕사원연합회, 뉴욕불교신도회였으며, 주관은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대표 정범스님)였다. 사무국장 상인스님의 인솔로 이루어진 행사는 미주동포 학생들과 간사 22명, 조계사·육전암 그리고 부산 미타선원 청소년 20명, 인솔스님 및 간사까지 총 45명이 함께 했다. 불교문화를 탐방하고, 우리의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길목에 중요한 이정표로 남길 발원하며 기획한 원대한 프로젝트였다. 긴 시간 동안 기획하고 수정하면서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단 하나의 큰 목적이 있었기에 함께 할 수 있었다. 또 하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그리고 많은 사찰과 스님들의 청소년 포교에 대한 깊은 뜻과 지원이 이루어졌기에 대장정을 떠날 수 있었다.

양국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였고, 입재식을 한 국제선센터에서는 위치와 시설에 있어 한국불교의 새로운 움직임과 그 규모의 장엄함에 놀라움을 표했다. 서울에서는 경복궁, 동대문시장, 청계천 그리고 조계사 등 한국의 역사와 불교뿐만 아니라 현재의 발전된 모국을 볼 수 있는 생생한 시간이었다. 미국에서 온 학생들은 조계사에서 참선 체험 후 명법스님과 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예전에는 왜 엄마가 절에 가는지에 대해 이해를 못했는데, 거기서 왜? 라는 말 대신 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제는 절에 가는 이유를 찾았다며 대견함을 보였다. 다음으로 화성행궁과 수석사의 템플스테이, 부산 미타선원 주지 하림스님의 법문 그리고 송도해수욕장에서의 즐거운 시간이 참가자들의 마음을 한곳으로 묶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어 통도사의 자비명상 및 석굴암 참배 등은 또 다른 나의 모습과 나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과정으로 남았다.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야기하고 풀어가면서 알게 모르게 쌓은 정으로 인하여 헤어질 때는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이 진행자 입장에게는 행복으로 다가왔다. 아이들은 참으로 재밌다. 버스 대여 회사가 내나라관광이었는데, 지금 현재 페이스북 “내나라관광”이란 모임방에서 활발히 네트워크 형성 중이다. 겨울에 있을 미국 답방을 기다리면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왜 이리 힘든 일들을 해야 하나 생각했다. 그런데 불교나 역사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또한, 도움을 주신 많은 스님들과 관계자님들의 포교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앞으로 회를 거듭 할수록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본다. KBIN 간사 선전화 070-7769-8985



환영만찬 후 기념촬영

##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10호 화장실 건립

작년 8월부터 시작한 로터스월드와 법보신문 공동캠페인이 열 번째 화장실을 완공함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캄보디아 썬라움 초등학교에 1호 화장실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7월 13일 꺼바우 초등학교에 10호의 화장실을 건립하게 되었다. 특히 10호 화장실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기정기탁으로 완공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공동캠페인을 진행한지 10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10호의 화장실이 건립 될 수 있었던 것은 200여 명의 불자들과 불교계 단체들이 십시일반으로 자비나눔을 실천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차리는 의지를 다지게 하고 있다. 10호의 화장실을 지원받은 꺼바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현대적 화장실을 지원받은 만큼 학생들이 더 이상 배가아파 결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위생의식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러한 의지와 바람이 십시일반의 나눔의 힘과 만나 수행성질병 퇴치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해 보며, 화장실 지원과 교육을 통해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수인성 질병 퇴치를 목표로 로터스월드는 지원사업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로터스월드 박영신 재무팀장 www.lotusworld.or.kr



(위) 국제선센터에서 입재식 (아래) 조계사 시민선원에서의 참선 체험 현장

# 동국대 불교학과 고영섭 교수, 보스턴 문수사에서 한국사상사 1년 강의 성료

2010년 여름부터 1년간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년을 보낸 동국대 불교학과 고영섭 교수가 보스턴 문수사에서 1년간 진행하였던 한국사상사 강연을 성료하였다. 고영섭 교수는 하버드 대학 아시아센터 한국학 연구소에서 '미당 서정주 시의 불교 혼숙'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 도미하였는데, 이 대학 인근에 자리잡은 문수사에서 강의를 요청 받고, 월 1회씩 1년간 한국사상사를 강의하였다. 고영섭 교수는 "원광, 원측, 원효, 의상, 무상 등 한국의 대표적인 고승들의 사상 키워드를 찾아 그 의미를 부각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지난 1년간 문수사 대중들과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도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7월 24일 마지막 강연에서 고영섭 교수는 신라의 왕자로서 중국에서 활동했던 무상 대사를 소개하며, 7세기 신라시



대의 불교는 이미 국제성, 세계성 그리고 보편성을 실현하였으며, 이 당시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활약하며 업적을 남긴 현기, 관특, 혜자 그리고 무상 대사 등은 반드시 재조명되어야 하며 이미 학계에선 그러한 흐름이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고 교수는 강의를 마치며 "인류 최고의 지혜가 불교"라는 점을 지적하며 학자들은 불교를 오늘 여기의 언어로 다시 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불자 여러분들은 최근 들어 출간되고 있는 양질의 불서를 많이 읽을 것을 당부하였다.

문수사 회주 도범스님은 한국사상사 성료를 축하하며 문수사 대중들의 사의를 표하는 뜻에서 고영섭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미국의 대표적 교육도시인 보스턴 인근에 위치한 문수사는 연구자 이 지역에 머물게 된 학자들에게 정기법회를 통해 강연의 장을 제공하고 있어 매주 일요일마다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대전대 역사학과 도면희 교수가 근대 한국사를 주제로 강의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치는 이영준교수가 2회에 걸쳐 한국문학 특강을 한 적이 있다.

문수사는 이러한 강연들을 모두 녹취한 후 CD로 제작, 대중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보스턴 문수사 [www.munsusa.org](http://www.munsusa.org)

## 하와이 무량사, 노인 요양원 개원 불사

하와이 최대사찰 무량사가 한인을 위한 요양원 개원을 위해, 100만불 모금을 목표로 불사를 시작했다. 무량사는 사찰 인근에 한인 불자들의 노후 관리를 돕기 위한 요양원 설립을 발원하고 주택 6채를 구입한 바 있다.

무량사 주지 도현스님은 "하와이에는 한국인이 이민 온지 108주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노인복지 시설이 없다"고 지적하며 "사찰에 나오시던 노인 신도분들이 갑자기 안보이셔서 궁급해 하면, 필리핀 또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종종 만났던 적이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도현스님은 "하와이 한인 전체 인구 가운데 20% 이상이 노년인 현실에서 노인을 위한 요양원 시설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하와이 무량사 부설 팔물로 요양원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성급 호텔 수준의 설비를 목표로 하는데 현재 신도들이 폐품수집, 돼지저금통 보시 등을 통해 이십만불의 기금을 확보한 상태이다. 도현스님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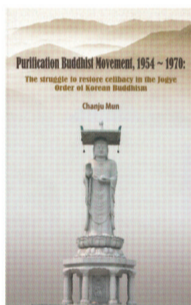


르면 100만 불의 기금을 조성하면, 하와이 노인복지에 많은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와인버그 재단에서 100만 불의 매칭펀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연방정부로부터 30년 무이자 대출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노인 불자들이 말년에 한국어 서비스와 한국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건강과 장수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며 "모쪼록 이번 모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많은 불자님들과 스님들의 의지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와이 무량사 [www.hawaimuryangsa.org](http://www.hawaimuryangsa.org)

## 하와이주립대 성원스님, 조계종사 영문 서적 출간



하와이 주립대 교수이자 불교전문 영문출판사를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원스님이 현대 조계종사의 전환기였던 정화불교운동을 다룬 서적을 출간하였다.

"Purification Buddhist Movement, 1954-1970: The struggle to restore celibacy in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라는 제목으로 Blue Pine 출판사에서 428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출간됐다. 이 책은 기존의 접근방식과 달리 철학적 맥락에서 정화불교운동을 다룬 최초의 단행본으로서, 정화불교운동을 "정통실천, 즉 계율을 회복하는 계율부흥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성원스님에 따르면 해방 이후 대처승 그룹은 비구승과 대처승이 공존하는 승단을, 그리고 비구승 그룹은 비구승 독존의 승단

을 주장하며 이론적 정당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 주목된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 비구승과 대처승의 갈등 그리고 비구승의 조계종 탄생과 대처승을 허용하는 태고종의 출현 과정은 한국불교사 최초로 계율 해석상의 차이로 발생한 승단의 분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원스님의 은사이자 통도사 주지를 역임한 정우스님은 이 책의 축사를 통해 비구승 교단인 현 조계종은 정화불교운동의 직접적 결과로 형성되었다고 지적하며 그러한 역사적 과정을 서술하는데 있어서 이 책은 특정 입장에 경도되지 않고 세계적 시각에서 정화불교운동을 객관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또한, 성원스님의 본사인 통도사는 한국불교의 계율도량으로서, "통도사의 계율정신을 계승하여 정화불교운동을 계율부흥운동으로 최초 자리매김한 것은 탁견"이었다고 평가했다.

필자인 성원스님은 이 책에서 통합주의/종파주의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경전의 해석학인 중국과 한국불교의 교판을 간단히 분석한 후, 근현대 한국선불교의 수증론과 법맥설을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근현대 한국불교의 정화불교운동과 그 결과로 창종된 태고종의 형성을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원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 학사, 서울대 철학과 석사를 거쳐 위스콘신 주립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불교의 대표적 학승으로 현재 하와이 주립대학교의 철학과와 종교학과에서 불교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까지 8권의 영문서적을 저술 및 편집하였으며 3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 워싱턴 보림사 경암스님, 부여 능사 초대주지 발령

백제 문화의 복원과 부활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능사의 초대 주지로 워싱턴 보림사 경암스님이 추대되었다.

능사는 백제 능산리 고분군으로 등장하는 능산리사지의 출입말로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한 백제 왕실의 사찰이며, 백제의 대표문화재인 백제금동대향로(국보 287호)와 창왕명석조사리감(국부 288호)이 출토된 곳으로서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 7년 만에 복원되었다.



합회장, 미주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 고

능사 운영위원회는 7월 25일 첫 회의를 열고, 마곡사가 추천한 경암스님을 첫 주지로 임명했다. 경암스님은 미국 워싱턴 DC 보림사 주지와 워싱턴 사업연

문 등을 맡으며, 30여 년간 미주포교에 전념해 왔다. 주지 발령 소식을 들은 경암스님은 보림사에서 가진 세계일화와의 인터뷰에서 "삼국의 불교 중 가장 찬란한 불교 문화를 이루었던 백제의 옛 사찰의 복원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능사를 활성화시켜 한국불교의 진수를 일본에 새롭게 전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능사 주지의 임기는 2년이며, 초대 주지 진산식은 오는 추석 이전에 봉행될 예정이다.

워싱턴 보림사 +1-703-352-0380

글\_이종권(편집위원)

## 뉴욕 대관음사, “전생담” 법회

전직 뉴욕주 대법원 판사이자 미국인 현역 변호사가 뉴욕 대관음사에서 자신의 전생과 인연에 관한 스토리를 한국 사찰에서 체험담 형식으로 강연하여 감동을 선사했다.

7월 24일 정기법회에 초청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날 강연에서 동물보호운동가이자 선수행자로도 오랫동안 활동해온 Virginia Yansey는 수 십 번의 생을 초월한 강아지 한 마리와의 인연 이야기를 공개하였다.

영적 수련과 탐구를 위해 해마다 인도를 방문하는 그녀는 2002년 친구의 집에 머물 때 인근 숲에서 다른 개에게 시달림을 당하던 강아지를 알 수 없는 끌림에 의해 미국으로 입양하였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입양된 강아지는 Ras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Ras는 이따금씩 알 수 없는 야릇한 표정으로 Yansey를 바라보곤 했다. Yansey는 평소 이유 없이 엄습하는 패닉으로 고통을 받곤 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전생 퇴행 치료전문가를 찾았다. 전생 퇴행을 통해 보게 된 장면 가운데 하나는 2000년 전 로마에서 군인들에게 짓밟혀 죽는 순간이었다. 죽음의 순간 함께 있던 6살배기 남동생의 표정이 인상에 박혔다. Yansey가 없으면 아무도 돌보줄 사람이 없는 아이였다. 최면에서 깨어나자 전생 퇴행 치료사가 물었다. 바로 그 표정을 현생의 주변사람에게서 발견한 적은 없는가? 바로 그 순간 Yansey는 해답을 찾았다. 자신에게 야릇하게 바라보곤 했던 Ras의 표정이 바로 그것



이었다. Yansey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Ras가 2000년전 헤어졌던 친동생이며 그 동생은 그 후로도 수 천 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맸었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그녀에게 엄습했던 패닉의 원인은 죽음의 순간 더 이상 동생을 돌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었고 Ras의 알 수 없는 그 표정의 정체는 자신을 버리고 죽어가는 누나에 대한 원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로 Yansey에게 엄습했던 공포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이 천년 동안 아프게 맺혀 있던 인과의 고리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대관음사 주지 청호 스님은 “오늘 강연하신 Yansey는 우리 절 신도님의 오랜 친구로서, 너무나 소중한 사연이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대관음사 식구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와 초청하게 되었다”며 “체험을 통한 깨달음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소개되었던 Yansey의 사연은 대관음사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마에 영어 원문으로 게시되어 있다.

뉴욕 대관음사 +1-718-631-4556

## 영국 연화사, 현지인 포교 강화

영국 연화사는 1989년 지수(智首)스님과 영국 원로 불자 교포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한국교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런던 외곽의 뉴몰턴 지역에 있으며 정기적으로 예불에 참석하고 있는 인원은 약 70여 명에 이른다.(초과일 경우 약 200여명의 내외국인 참석)

지난 2008년 4월, 원로신도들의 요청에 의해 지수스님께서 재부임 한 이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사시예불을 비롯한 일요일 법회 때에는 한글 반야심경을 독송한 후 반드시 영어 반야심경을 읽어 대부분의 신도들은 영어 반야심경을 외울 정도이다. 물론 한글 천수경과 해연선사 발원문 및 반야심경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매년 10월 하순 이후에 있는 신도 수계법회에서는 신청자들이 천수경, 반야심경, 이산 해연선사 발원문을 완전히 암송하여야 수계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도들에게 많은 공부를 요구하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정신을 오로지 접하는 그 한마음으로 가다듬으면서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천천히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절이라 하시면서 40분 동안에 108배를 하라 하신다.

1년에 네 차례 영국의 타지방과 유럽으로 참선지도를 다니시는 스님의 외부 참선지도 일정을 간략히 소개한다.

- ◆ 영국 런던 중심가 Hammersmith의 정신과 의사 Nicholas Carroll씨의 집 삼층 선실에서 법문 및 참선 지도 (‘The Group’이라는 이름의 참선동아리 회원 남/녀 14명 참석, 매월 마지막 월요일 저녁 7시~9시 30분)
- ◆ 영국 남서쪽 Devon지방의 Golden Buddha Centre ‘TotnesDevon’ (7월 29~31일, 2박 3일 참선 수련)
- ◆ 영국 남서쪽 Retreat Centre on Dartmoor ‘Bala Brook’ (8월 27~9월 2일(7일)참선 수련회 지도 (www.balabrook.org.uk))
- ◆ 슬로베니아 10월 6~9일(4박5일) 참선수련회 지도 (www.vitazen.si)



스님께서서는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이라 하시면서 끊임없는 공부와 변화를 추구하신다. 그래서 신도들에게도 참된 불자로서의 높은 자질을 요구하신다.

글 신도 일심  
영국 연화사 +44-208-549-6092

### 해외에서 날아온 글...

## 가는 곳마다 주인 의식 갖고 불교를 개척하자

필자는 지난 겨울 동국대학교 학부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보스턴으로 건너왔다. 미국에 온 이유는 불교의 세계화에 순응하기 위해 기본적인 어학습득과 미국에서 다양한 세계불교를 접해보기 위해서이다. 사실 2010년 여름방학 때 3개월간의 짧은 어학연수 과정을 밟았는데, 미국생활을 경험한 나로서는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다. 어쨌든 나는 미국행을 결정하여 지금 어느덧 반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보스턴에서 송산스님이 창건한 캄브리지 선원에 머물면서 많은 미국인들과 접하고, 아침저녁으로는 예불과 참선을 하고 낮에는 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큰 불교행사가 있으면 참석하여 불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그 중에서 한국불교의 위치는 어디에 와 있는가? 숙고해 본다. 본인이 느낀 점을 몇 가지로 간추려 보면 다양한 세계불교의 모임에서의 기본적인 통일 의식 및 정보소통의 필요성, 미국에 있는 다양한 불교 가운데서 한국 불교의 특화전략, 그리고 유엔이 지향하는 세계평화에 불교의 역할이다.

첫째, 지난 5월에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Vesak Day(부처님오신날) 행사에 참석했다. 모든 나라의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하여 부처님 탄생과 성도를 축하하면서 세미나도 개최했다. 거기에서 느낀 점은, 식을 시작하는데 각국 불교인들이 같이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앞으로 많은 불교 행사가 각국의 불교들이 모여 진행되어지리라 보는데 기본적인 의식은 갖추어져야 하겠다. 아울러 미국에서 각국 불교들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센터(Online Center)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각국의 좋은 스님들의 법문이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웹사이트도 있기는 하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온라인센터가 필요하다.

둘째, 미국에 있는 다양한 불교 가운데서 한국불교가 갖추어야 할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한국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장자 종단으로서 불교를 대표하고 있다. 조계종은 통불교이면서 선종교단을 자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종교단이 미국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인가? 미국인들은 불교 중에서도 특히 참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참선 중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하는 참선은 보편적으로 미국인에게 익숙하지 않다. 본인은 거기에서 얻은 힌트가 이들에게 맞는 것은 움직이면서 하는 노동선(Working Meditation)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선은 특히 남방불교에서는 아직도 스님들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대승불교권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 노동선을 하고 있는 곳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린컬처농장(Green Culch Fam)이다. 이곳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예불과 좌선 그리고 낮에는 가벼운 노동을 하면서 참선을 하고 있다. 아마 한국불교도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노동선이 아닌가 싶다.

셋째, 반기문씨가 유엔사무총장을 재임하고 있다. 지난 5월 유엔본부에서 반기문총장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불교와 인연이 있다고 연설문을 시작하였으며, 중간에 불교가 세계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연설을 하였다. 누구보다도 불교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불교

가 유엔에서 세계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작년 한국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유엔을 방문하여 사무총장과 면담한 일이 있었다. 총무원은 더욱더 유엔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획과 실천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미국의 불교는 세계 각국의 불교가 모여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구심적 역할이나 소통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선불교의 용어 중에 ‘수처자주’란 용어가 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는 뜻이다. 한국불교도 다양한 불교국가 중에서도 주인 의식을 갖고 먼저 발 벗고 나서서 미국인들에게 맞는 새로운 불교를 개척하는데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다.” 라는 명언이 있다. 한국 불교가 아무리 수승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고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본인도 아직 미약한 우남에 불과하지만 나름대로 이러한 불사를 이룩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불교전파를 위해 헌신한 서경보스님, 송산스님을 비롯한, 현재에도 묵묵히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스님과 불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기를 기원한다.

글 청강스님

## 워싱턴에서 열린 칼라차크라 세계평화법회 - 아시아 타임즈(인도) [2011. 7. 20]

미국, 워싱턴 - 워싱턴에서 7월 6일~16일 '2011 세계평화를 위한 칼라차크라법회'가 열렸다.

이번 법회는 티베트 최대 법회이자 축제인 칼라차크라 의식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는 데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 법회에는 망명 중인 티베트의 종교적, 정치적 중요 인물이 거의 모두 참여했다. 제 17대 까르마파 라마와 망명 정부 총리 롱상 상가이도 칼라차크라에 참석했다.

특히 중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의 회동



달라이 라마 생일축하 의식

이 있었는데 티베트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만남은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이번 만남은 티베트의 독특한 종교

적,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 보존과 티베트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말했다.

이 행사는 달라이 라마의 76세 생일에 열렸다. 수천 명의 티베트인, 불교인, 미국인 지지자들이 모여 축하했다. 달라이 라마는 오바마 대통령 이외에도 미국의 고위관료와 의원들도 만났으며 이들을 망명 중인 티베트인들에게 소개하여 지지와 미래 협력을 이끌어냈다.

제 17대 까르마파는 처음으로 칼라차크

라에 참석했고, 미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가꾸파 소속 선센터와 신도들로 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미국의 불교 학자이자 저술가인 로버트 셔먼은 "까르마파는 미래 불교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고, 실제로 이미 그렇다."고 말했다. 까르마파는 꾸준히 세계에 얼굴을 알리고 있다. 달라이 라마도 그를 보호하면서 미국의 주요 인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까르마파가 곧 자신을 대신해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재도약하는 러시아 불교

- 보아뉴스 [2011.7. 17]

러시아 - 러시아에도 불교가 있다. 재정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정복했을 때 대체로 몽고인들의 티베트식 불교를 용인했다. 그러나 소비에트러시아는 불교에 전쟁을 시작했고 절들을 불도저로 밀었다. 수백 명의 스님들을 사살했고 노동수용소로 보내기도 했다. 톨진 초이드린스님은 공산당의 억압으로 불교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불교적 세계관과 가치관도 파괴되었다고 말했다. 소비에트는 불교를 지하 세계로 쫓아냈다.

그러나 칼미키아, 투바, 브리야트 공화국의 뿌리 깊은 신심을 제거하진 못했다. 혁

명 전보다 불자수가 더 많아졌다. 그들은 달라이 라마를 러시아에 초청하고 불사도 하고 싶지만 모스크바는 2004년 이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초이드린스님은 달라이 라마가 방문하면 러시아 불교가 부흥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치적 역할을 포기했으므로 러시아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의 가장 큰 단일 교역 파트너이다. 중국 관리는 크레믈린이 13억 중국인과 1백30만의 달라이 라마 추종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선과 섞임의 미학

- 가디언 [2011. 7. 17]

영국, 런던 - 런던의 화이트 홀에 있는 해군본부에서 영국에 있는 다양한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사이드 와시(영국의 변호사, 정치가, 보수당의 공동의장)의 초청 만찬에 모여 불교 공동체의 사회공헌을 기념했다.

스님들이 모인 방은 여러 색들의 가사로 인해 지하철 안내지도 같이 보였다. 선사들의 짙은 갈색도 있었고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장식된 티베트 계통의 가사며 테라바다 스님의 옐로우색 가사도 있었다. 또한 진홍색 가사를 수한 미얀마 스님과 장식이 있는 갈색 법복을 입은 정토종 법사도 있었

다. 그들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수녀들과 한 명의 조로아스터교인도 있었다.

스님들이 출입구에서 핸드폰을 꺼내 말기는 모습에서 부터 퀴스워에 있는 런던 불교비하라 합창단의 노래까지 조금 독특한 행사가 웅장한 18세기 건물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군대 불자회 소속 군인들이 가슴에 훈장을 달고 단정하게 손질된 제복을 입고 나타나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레이디 와시는 소파에 올라가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의 참가자들에게 환영 인사를 했다.

## 미국 선의 개척자 살롯 조코 벅, 입적하다

- buddhadharma on line [2011. 7]

미국 - 미국에서 선의 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코 벅이 6월 15일 입적했다. 1917년에 태어난 벅은 하쿠유 타이잔 마에즈미 로시를 만나 선수행을 시작했다. 1983년 샌디에고의 선센터와 1995년 평상심선학교(Ordinary Mind Zen School)을 창립했다. 그녀는 설법과 현대 선의 두 고전 - 일상선: 사랑과 일, 특별한 것이 없는: 살아있는 선 - 의 저술을 통해 미국의 1세대 불자들에게 널리 존경 받는 인물이었다. 정신적 문제를 다루는데 능숙했기 때문에 선과 현대 심리학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다수의 제자를 이끌었다.

<살아있는 선>에서 조코 벅은 우리가 집

착하는 관념과 실제로부터 어떻게 마음이 우리를 분리시키는지를 매우 독특하게 분석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녀는 나쁜 정신적 습관들을 개선해 좋은 것으로 대처하는 대신, 우리의 미망과 정신적 상태를 통찰해 우리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버리게 한다. 법제자인 바리 매지드는 "매일의 일상에서 절대 진리를 체험하도록 일깨우셨다. 화가 나고 근심이 올라올 때 머물러 지켜보는 것이 단지 바라보거나 저항하여 감정을 다스리려는 테크닉에 불과한 것이 아닌 그것, 곧 절대 진리이다. 해결하거나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닌 진리자체인 것이다."라고 스승님이 가르치셨다고 말했다.

## 제6회 "법문의 빛" 중국 법문사에서 개최

- 불교재선, www.fjnet.com [2011.07.19]

중국 - 2011년 7월 18일에서 22일까지 "지은보은, 자아헌신"을 주제로 제6회 "법문의 빛" 행사가 법문사에서 개최됐다.

개막식 행사에는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법문사 방장, 법문사 불학원장인 학성스님을 비롯해 산시성 종교사무국 관계자들과 참가자 500여 명이 함께 참석하였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학성스님은 개막식 치사에서 "본 수행 체험이 참가한 청소

년들에게 중국불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사찰에서 대중생활을 통해 사찰 생활을 깊이 체험하길 바란다" 말하였다.

중국 각지에서 온 대학생 참가자들은 4박 5일의 수행 체험 기간 동안 참선, 사찰 예절교육과 생활을 체험하며 현대불교문화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 히에이잔 종교 Summit 24주년

'세계평화 기도모임' 개최 - 교토신문 [2011. 8. 4]

일본 - 종교와 종파를 넘어 평화로의 서약을 다짐하는 '세계 평화 기도 모임' 행사가 8월 4일 일본 오오츠시 히에이잔 엔라쿠지에서 열렸다. 이날 다양한 종교, 종파의 대표자 9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세계평화와 동일본 대지진의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며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날 일본 천태종 종정 한다코준(半田孝淳, 93) 스님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원과 세계 분쟁 해결에 대해 "이기주의를 억제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일 교황청 대사를 비롯해 나라 콘고부지(金剛峯寺) 주지 스님과 불교, 신도(神道), 기독교, 이슬람교 등 각 종파 대표자가 단상에 올라, 종소리에 맞춰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와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를 올렸다.

들이 지난 1986년 이탈리아에 모여 세계평화를 염원하며 기도행사를 가진 것에서 비롯됐다. 이어 천태종 국제평화종교협력협회가 1987년 이를 계승해 매년 행사를 열고 있다.



집중조명

# 영국의 신세대 선치료사, 뉴욕의 문을 두드리다

- 뉴욕타임즈 [2011. 6. 22]



패션 사진의 요람인 인더스트리아 대스튜디오는 한때 탑모델 마크 윌버그가 캘빈 클라인의 청바지를 입고 매력을 발산했던 곳으로 정신적 깨달음을 구하러 찾는 장소는 아니다. 그러나 지난 달 수요일 런던타임즈가 영국 최고의 선지도자로 부른 앤디 퍼디콕이 미국을 처음 공식 방문하여 젊고 잘 빠입은 뉴욕인들 앞에 섰다. 그는 이 스

튜디오를 세계에서 최고로 멋지게 장식된 선원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만약 뉴욕 사람들이 모든 것을 놓고 10분간 참선한다면 뉴욕은 어떤 모습일까요?”라고 스님이었던 퍼디콕은 강한 영국식 악센트로 물었다. 내면의 평화를 10분의 짧은 수행으로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패션잡지의 편집장, 증권맨과 광고계 중역으로 구성된 초청 인사들에게 전했다.

“뉴욕은 나에게 큰 도전이다.”라고 그가 말했다. 퍼디콕(38세)은 빠르고 쉬우면서 종교적 색채를 배제한 선으로 향냄새에 멈칫할 것 같은 바쁜 전문직 종사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행할 수 있는 수행법을 가르친다. 내년에는 사업 파트너인 리치 피어슨과 함께 헤드스페이스를 미국으로 옮겨와 뉴욕, 마이애미와 L.A.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순수주의자들은 짧은 시간에 지복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약속에 눈살을 찌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퍼디콕은 이미 영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수행인들에게 미국의 유명한 의사인 닥터 필과 같은 사람으로 인식된다. 그의 새 책 “뇌에 공간을 두자: 10분 참선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공식 웹사이트인 [getsomeheadspace.com](http://getsomeheadspace.com)은 초보자용 비디오로 수행지도를 한다. 작년에 20만 명이 방문했는데 이는 퍼디콕이 BBC라디오에 자주 출연한 덕분이다. TV에도 진출하고 있다. 9월에는 영국의 채널 4에서 퍼디콕의 10분 수행 비디오를 시리즈로 내보낼 예정으로 정규 프로그램 사이에 방송될 것이다. 점점 증가하는 방송 출연은 런던 켄싱턴 지역에서 은행가, 배우, 프로축구 선수와 국회의원 등의 고소득자들을 치료하던 중 이루어졌다. 그는 또 노무라 증권과 구글과 같은 대기업에 상담을 해 주고 있다. 따라서 그를 돈 많은 계층의 큰스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진다. 그러나 퍼디콕은 이를 불편해 한다. 깎은 머리에도 불구하고 근육질의 몸매를 드러나게 하는 광택 나는 옷과 셔츠 때문에 토티햄 출신 축구선수로 오해 받을 수도 있다. 가디언지 웹사이트의 선 기고가이면서 작가인 ED 홀리웰은 퍼디콕이 “선수행 분야에서 요리사인 제미 올리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리버와 마찬가지로 그도 미국을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인더스트리아 행사에서 정신적 깨달음이 아닌 지속적인 호흡과 마음을 집중하는 연습을 결합한 수행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선을 세속화했다.”고 그가 말했다. “바르게 앉으세요.”라고 편안한 목소리의 톤으로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들을 지도했다. “너무 깨끗하게 앉지 마세요. 그러면 긴장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눈을 감고 천천히 자신의 호흡을 세고 숨을 내쉬면서 생각을 내려놓게 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으로 한 단계씩 사람들을 이끌어 갔다. 10분 후에 청중들이 수행에서 나오게끔 지시했다.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마치 긴 낮잠에서 깨어난 듯 다시 집중하려 했다.

맨하탄에서 온 변호사 플린 코올만은 사무실에서 법률 서류와 씨름하면서 서재를 정돈하려는 자신을 보았다. 카드에 얼마가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했다. “그러나 이를 곰곰히 생각하고는 내려놓았다.”고 그녀는 말했다.

- 앤디 퍼디콕(Andy Puddicombe)은 11세 부터 어머니를 따라 선수행을 시작했고 다양한 수행법을 시도해 보았다. 22세 때 스님이 되려고 아시아 각국을 여행했고 티베트 사원에서 비구계를 받았으며 세계를 다니며 수행했다. 2004년 영국에 돌아온 후 선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헤드스페이스(headspace)를 세워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선수행을 통해 안락을 얻게 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 불교를 통해 세상에 뛰어든다

- 마테오 피스타노, 워싱턴 포스트 [2011. 7. 15]

참여불교는 수행과 정신적 가르침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경제적 고통과 부당함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불교를 말한다.

참여불교의 뿌리는 부처님과 성인들의 가르침과 행적에 있지만, 19세기 아시아에서 시작된 서구 식민주의에 대한 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여불교도는 부처님의 말씀을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비판적, 창조적으로 응용한다. 티베트 스님, 캄보디아의 마하 고사난다스님, 아웅산 수키 등의 지도자들이 참여불교의 원리를 구현하고 불교평화위원회, 참여불교국제네트워크와 젠피스메이커의 단체를 이끌고 있다.

1990년 말 처음 티베트에 갔을 때 성지 순례 중이었고, 정치에 관여하거나 참여불교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밀교 수행자 테르탄 쇼갈의 발자취를 따라 외딴 성지에서 수행도 했고, 영적 체험을 한 동굴에서 자기도 했다. 말을 타거나 걸어서, 낡은 버스를 타고 그가 갔던 눈 덮인 길을 건넜다. 살아있는 큰스승과 테르탄 쇼갈의 정신적 맥을 이으면서 그의 삶과 법을 전해 줄 수행자를 찾아 다녔다.

그러나 나의 순례여행에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일어났다. 테르탄 쇼갈의 가르침에 몰입 할수록 더 많은 티베트인들을 만나고, 중국의 점령 하에서 그들이 겪는 좌절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10여



년의 순례여행이 다른 형태의 순례가 되었다. - 이로 인해 “불다의 그림자 아래서: 비밀 여행, 성스러운 역사, 그리고 깨침”이라는 나의 책은 이중 서사구조가 되었다.

정치와 정부 등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현재에 다른 사람들의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변화에 영향을 주어야 할 어떤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나에게 참여불교다. 내가 책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사회, 다른 나라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 책임감을 잃지 말기를 바랄 때 문이다.

구도의 길에서의 향상은 우리 자신에게 고통을 넘어 진실 되고, 지속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는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는 믿는다. 사회참여의 완성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지속적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들께 배운 현신이며, 앞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이다.

## 호주 비구니 스님의 사회활동

- 유레카 스트리트 [2011. 6. 18]

호주, 시드니 - TV에 나온 호주 비구니 로비나 코틴 스님은 조용하고 편안한 모습의 전형적 스님과는 달리 과장된 기질의 눈에 띄는 인물이다. 또한, 로비나 코틴은 훌륭한 자질을 갖춘 스님이다. 유명한 불교 출판사의 편집장이었고 죄수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프로젝트의 국장이었다. 현재 서구 사회에서 존경 받는 불교 법사이다.

스님은 1944년 멜번에서 태어났으며 가톨릭 집안에서 자랐다. 종교 이외에도 다방면에 관심이 있었고, 음악을 좋아했다. 10대 때 학교축제에서 우연히 빌리 홀리데이의 레코드를 사게 된 계기로 미국 흑인 음악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는 그의 사회적 양심을 강하게 일깨웠고 사회활동가가 되는 동기가 되었다.



청년기 때 노래를 배우러 런던에 갔다. 그때 여성운동에 참여했고 죄수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다시 오스트리아와 미국에서 살게 되었을 때 유도를 배웠다. 1976년 라마 조파스님이 이끄는 퀸즈랜드 FPMT의 불교 안거에 참여했다. 다음 해 네팔의 코판사원에서 불교를 공부했고 비구니계를 받은 이후로 FPMT에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며 일을 해왔다. 라마 조파스님은 이 재단의 정신적 지도자이다. FPMT는 6개 나라에 절이 있고 40여 국가에 선센터가 있으며, 전세계에 건강관리소와 호스피스, 교도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님은 2000년~2009년까지 미국 FPMT 자유교도소 프로젝트를 만들어 150개 기관에 흠어져 있는 수백 명의 죄수들의 정신적 육구를 보살피고, 그들에게 불교 문학과 편지를 보냈으며, 방문하여 설법과 상담을 해 주었다.

스님의 청으로 종신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한 죄수에게 라마 조파스님은 “당신의 교도소는 일반 사람들의 교도소- 아집의 교도소, 집착의 교도소, 회의 교도소, 우울함과 자만심의 교도소- 와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라고 썼다. 스님은 이 말을 자주 되새기는데, 불교를 더 넓은 사회에 알리고 법을 전하도록 힘을 주기 때문이다.

# 네팔법당 용수사, 어린이 생일잔치 열려 다문화로 가는 길목, 이주민 행사도 다채로워져

지난 7월 3일 능인선원 동두천 지원이자 한국 YBA 이주민센터인 네팔법당 용수사에서 네팔 어린이 푸바 치링(남, 6세)의 생일잔치가 열렸다. 푸바는 아버지 다와 칼상(38세)이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오게 되어 가족끼리 돌잔치를 못했다. 다와는 5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보지 못했고,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마음 한 구석 응어려져 있었다.

그런데 올해 상황이 변했다. 아내인 양젠 라마(39세)와 푸바가 모두 한국에 오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볼 수 있게 된 기쁨과 아울러 마음의 짐도 내려놓을 겸해서 다와는 친지들을 초청해 조촐한 생일상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장소로는 네팔법당 용수사만큼 마음 편한 장소가 없었기에 주지 우르젠 스님께 문의하였고 흔쾌히 승낙을 받아냈다.

푸바의 부모님은 하루 전날부터 카레,

네팔 전통 과자 등 손님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한 여름 음식 준비를 하느라 비 오듯 땀이 흘렀지만, 이들의 생일잔치를 축하하러 온 손님들께 대접할 것을 생각하니 조금도 소홀할 수 없었다.

푸바의 생일잔치는 아침 11시부터 시작했다. 오색 풍선에 케익, 선물까지 아이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용수사도 더욱 환해진 느낌이었다. 잔치가 끝난 6시까지 용수사를 찾은 사람들은 200명이 넘었다. 풍성한 먹을거리에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었으니 아이도 부모도 손님도 마음 가득 행복이 넘친 자리였다.

네팔법당 용수사는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설립한지 만 3년이 지났다. 그간 이주민을 위한 여러 행사를 치렀지만 어린이 생일잔치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보통 명절 행사와 봉축행사는 이주민들이 개인단위로 용



수사를 찾는데 비해, 이번 생일잔치는 가족 단위 이주민들이 대거 방문했다는 점이 특이할 만했다. 푸바의 생일잔치를 통해 한국 사회가 다문화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현실

을 분명하게 마주할 수 있었고, 센터 입장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가족 단위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한국YBA 02-6414-1034

## 꿈을 이루는 사람들 - 『BEST외국인도움센터』 선정

전국 268개소 중 3위, 경북에서는 1위 선정.

구미시 지산동에 위치한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꿈을 이루는 사람들”에서 7월 11일 유병주 구미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이 대표인 진오스님에게 경찰청장을 대신하여 감사장과 30만원 상당의 상품을 수여하고, 외국인근로자 및 실무자들과 외국인들의 범죄예방 및 안전에 대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2010년 5월 외국인의 보호와 정착을 지원하고 외국인범죄 피해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피해신고 등 각종 민원 내용을 수집 청취하여 전달하는 외국인 도움센터로 지정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스리랑카, 캄보디아 스님과 더불어 베



트남, 중국 통역원을 주축으로 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통한 외국인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본 기관의 도움을 받은 외국인들의 구두를 통한 홍보와 자체 홍보를 통하여 경북지역과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외국인들의 범죄예방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 054-443-0755

### 불교와 이주민, 그것이 알고싶다

▶ 다음호 주제는 “이주민과 종교생활”입니다.

## 한국에서의 불자이주민 종교생활은 어떤가요?

2011년 6월 현재, 한국사회에는 126만 5천여 명의 이주민이 살고, 이중 불자 이주민은 약 40만으로 추정된다. 불자 이주민들은 자국 출신의 스님을 모시고 법회와 행사를 진행하며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자체적인 법회를 진행하거나 법당이 있는 곳은 20여 곳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 이 외에도 타 종단 또는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곳이 있으나, 전체 40만의 이주민을 생각한다면 아직 그 수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실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종교생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이주민의 30% 이상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어려

움의 내용으로는 1순위는 찾아갈 종교 시설이 없어서이고, 두 번째는 종교 활동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이며, 세 번째로는 의사소통이 되는 성직자가 없어서라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나 이번 조사는 불교계 행사 중 이뤄진 조사인 만큼 현실적으로 종교생활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 찾아온 불자 이주민에 대한 손님맞이에 한국 불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 아시아 불교의 중흥을 이루고, 전세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글\_ 남춘호(마주협 팀장)

## 미등록 체류자와 그에 대한 단속의 문제점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마주협)는 지난 6월 18일 김포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적이고 종교 탄압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7월 19일 항의 방문하였다.

이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손종하 소장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모장스님, 마주협 이금현 감사 등을 비롯한 실무자가 참석하여 면담이 이루어졌다.

마주협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손종하 인천출입국관리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 요구사항은
- ▲인권침해적인 이주노동자 길거리 단속 폐지
  - ▲종교탄압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 ▲단속과정의 위법행위 조사
  - ▲피해자에게 손해보상 요구 등이다.

면담에서는 법무부와 마주협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는 크게 좁혀지지 않았지만,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와 방지를 약속하였다.

손종하 소장은 “(7월 초)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전의 사례는 잘 모르지만, 이전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사과하며, 종교시설 안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서는 앞으로 단속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단속된 이주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주는 바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마주협은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의 인권침해와 종교 탄압에 대해서 지속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